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2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 1969년도 인쇄업계는?

1969년 2월1일자 인쇄문화시보에는 인쇄 및 출판, 잉크 부문 등의 업종이 근대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중점적인 사업에 대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가 게재됐다. 시보는 인쇄뿐만 아니라 유관 업종에 만연하고 있는 고질적인 성장 저해 요소를 고급 인력의 부재를 비롯한 설비 낙후라고 지적하고 각 부문 실무진들의 의견을 게재했다.

이 설문 조사에서 당시 동아출판사를 운영하던 김상문 사장은 한글 전문·분업화에 따른 경영 설비 등 제반 시설의 첨단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김창환 한국문화인쇄(주) 사장은 일반 산업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지만 인쇄요금 등의 적절한 수준 조절이 어려운 인쇄업계는 덩핑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송전 기계제작소의 전성규 사장은 기계공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정책이 타 업종에 비해 낫다는 것이 인쇄업의 근대화를 더디게 만드는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라고 꼬집었다.

● 오프셋 전용 판재의 전망

무 현상 판재가 21C 인쇄업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면 1970년대는 오프셋 판재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논의된 시기였다.

1971년 2월1일자 인쇄문화시보에 게재된 이 기사는 증가하는 오프셋 인쇄기기의 물량에 맞춰 판재

공급도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보는 점과 선으로 구성된 민판 인쇄물을 복제하게 된 시기가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이유로 컬러 필름의 증가 및 컬러 인쇄물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시대적인 흐름이 함께 작용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시보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각 인쇄 업체들의 인식 부재를 지적한 뒤 컬러 필름의 등장으로 새로운 분야가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판재는 여전히 답보를 먼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기존에 사용해 왔던 판재 및 오프셋 기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뒤처지는 것을 의미 한다"라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 해외 전시회 참가 현황

'추축했던 경기가 살아나자 인쇄·출판 업체들의 시야는 해외로 이어졌다'

1973년 2월1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유가 파동 등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졌던 시기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국내 경기가 점차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시보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분석한 출판 업체들의 동향 및 수출 보고서를 인용하며 라스베가스 국제 도서전을 비롯해 각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 수가 국내 출판사들을 주축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시 보고서에는 영

국의 AP월레스사와 미국 도서관 협회 공동 주최로 진행된 라스베가스 도서전에 삼화출판사의 명품 도감 등을 비롯, 150여부가 출품됐으며 전 세계에서 건너온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출판 및 인쇄 기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 중질지 가격 급상승

1977년 2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에는 용지 부문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기사가 하나 게재됐다. 각 용지 제자 및 공급 업체들이 중질지의 생산을 중단하기 시작한 것.

이로 인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희귀한 용지로 취급됐다. 이에 대한 업체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 롤당 가격을 10%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용지 업체들은 10% 인상으로는 그 동안 누적된 손실액을 만회할 수 없어 추가적인 인상 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었다.

시보는 인쇄, 잉크, 용지, 판재 등 각 업체들의 현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도 유독 용지 업체들의 불만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시보는 이윤이 많은 내수용지와 수출품만을 고집하는 일부 대형 용지 제자 업체들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층은 백상지 등 비싼 용지를 '올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일반 소비자들이라고 지적했다.



● 프로아형 오프셋 인쇄기

1979년 2월16일자 인쇄문화시보에는 체인 딜리버리 배지통이 장착된 프로아형 오프셋 인쇄기가 개발돼 많은 호평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24.5g의 얇은 종이에서부터 220g까지의 두꺼운 용지까지 폭넓은 사용이 가능했던 이 인쇄기는 활판 업계에 종사하고 있던 실무자들에게까지 큰 호평을 이끌어 냈다. 또 실버 마스터 등 다이렉트·마스터에도 적합하도록 단일 방식을 채택했으며 굵은 홈 롤러 등을 이용, 물 받음이 좋아 인쇄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어떠한 용지가 투입돼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강한 프레임은 경 인쇄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정보 누출로 인해 정확한 기기 명칭과 제원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인쇄 면적은 273×390mm까지 처리할 수 있었으며 시간 당 최대 7200매까지 작업이 가능했다.

● 필름 촬영 없는 제판기

필름 없이 제판할 수 있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1980년 2월16일자 인쇄문화시보에는 필름 촬영 과정이 필요 없이 인쇄판을 직접 제판할 수 있는 기기가 소개됐다.

시보는 전 세계적으로 필름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개발된 실버 마스터 제판기를

‘공정 단계를 줄인 획기적인 제판기(cp 100·200·400s)’라고 소개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다이렉트 제판 방식에 의해 필름 촬영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했다. 또 업계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필름을 이용한 방식은 피해갈 수 없는 일종의 관문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던 시기였다. 시보는 “이로 인해 고품질의 인쇄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내 제판 기술에 일대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만한 쾌거라고 기술했다. 시보는 특히 시중에 유통돼 있는 일반 제판기와 크기와 작업 면적은 동일하지만 70~125%까지 처리가 가능한 축소·확대 기능에 예로 들어 실용성을 높이 평가했다.

● 컴퓨터용 서체 관심 증폭

1993년 2월12일자 인쇄신문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컴퓨터용 서체에 대해 다뤘다. 신문은 1993년 당시 문화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미래의 한글 창조’라는 어문 정책에 인쇄·출판 부문의 서체 개발자들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부가 밝힌 정책의 주 골지는 바로 외래어에 밀려 우수한 한글 사용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자는 것. 또 일제 통치 시절, 주로 사용했던 단어들이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쓰이고 있어 후손에게 올바른 한글을 일깨워주기 위한 집대성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보는 특히 컴퓨터용 서체에 대한 문화부의 다각적인 지침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총 2500여자의 완성자를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서체로 변환해 정부 각 부처에 시범적으로 쓰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각 서체 개발 업체들의 다각적인 접근이 이에 대한 활성화에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저가형 잉크젯 프린터

40만원대의 잉크젯 프린터가 (주)삼보컴퓨터에 의해 시장에 선을 보였다. ‘스타일러스 300H’라고 명명돼진 이 프린터는 보급형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1994년 2월25일자 인쇄신문은 프린터를 선택함에 있어 그만큼 다양해졌다고 평가하며 날로 커져가는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타일러스 300H’는 360dpi급의 고해상도 출력력이 가능했으며 열 전사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또 아래아 한글이나 오토케드 등의 기본 드라이버도 공급이 가능해 소프트웨어와 완벽한 호환성이 이뤄진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래스터 그래픽 기능이 탑재됐으며 다양한 서체의 쓰임이 가능했다. 시보는 “프린터 부문이 점점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한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세계 시장에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기종이라고 전했다.